

# 뉴저지주 드디어 14일 주일부터 교회 개방 예배 드린다

## 단, 한꺼번에 50명 이내. 건물 수용 인원 25% 이내에서 허용

### 가톨릭 성당은 21일부터 대중미사

뉴저지주에 있는 교회들이 드디어 14일 이번 주일부터 예배당이나 성당, 사찰에 모여 예배와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

개신교 일부 교회들은 14일부터 “규정을 지키며” 현장 예배를 시작 한다. 가톨릭 성당들은 14일 주일 미사는 종전과 같이 ‘온라인’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15일 평일미사부터 “규정에 맞추어” 성당 문을 열고, 21일 주일 미사부터 역시 “규정에 맞추어” 개방 미사를 봉헌한다.

뉴저지주에 있는 예배당과 성당, 사찰들은 14일 이번 주일부터 개방하여 종교행사를 가질 수 있으나, 물론 제한을 지켜야 한다. 한꺼번에 모이는 숫자가 50명을 초과할 수 없고 건물 수용 인원의 25%를 초과할 수도 없다. 이 두 가지의 조건들 중에서 적은 쪽의 숫자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건물 수용 인원이 500명인 교회는 500명의 25%인 125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명 까지”의 규정에 따라 50명만 모일 수 있다. 건물 수용 인원이 50명인 교회는 50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 인원의 25%인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50명의 25%는 12.5명이므로 13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

된 판단이다. 25%까지이므로 12명까지가 맞다.

기독교계 신문인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목사)’는 뉴저지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 교회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몇 가지의 사항을 질문했다.

◆ “오는 주일(14일)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임교회(이חק권 목사), 한길교회(이병준 목사), 주 예수 사랑교회(강유남 목사), 길교회(양혜진 목사), 방주교회(오범준 목사), 기름부으심교회(장레오 목사), 임마누엘교회(우종현 목사), 성도교회(허상희 목사), 올네이션스교회(양준호 목사), 뉴저지 새생명교회(국남주 목사), 체리 힐행진교회(최무림 목사), 뉴저지 성결교회(김경수 목사) 등이 오는 14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은혜와평강교회(김학룡 목사)는 오는 주일에는 콘시스토리 멤버들만 현장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소망교회(박상천 목사)는 6월 21일 주일부터, ▲필그림선교교회는 6월 28일 주일이나 그 후에 현장 예배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새언약교회(김중국 목사), 뉴저지우리교회(오종민 목사), 드



뉴저지주에 있는 교회들이 드디어 14일 이번 주일부터 예배당이나 성당, 사찰에 모여 예배와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단 한꺼번에 50명 이내. 건물 수용 인원 25% 이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진은 새언약교회 2020 신년 주일 예배 모습

림교회(유병우 목사), C&G교회(권기현 목사, 박지우 목사), 주 소원교회(육민호 목사), 갈보리순복음교회(백형두 목사), 섬기는교회(박순탁 목사) 등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교회들은 “미국 교회들의 현장 예배 재개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찬양교회(허봉기 목사)는 수용 인원(650명)의 25%인 150명 이상의 예배가 가능해 질 때, 체리 힐제일교회(김일영 목사)는 1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예배당에 비하여 장소가 넓은 체육관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성개혁교회(송호민 목사), 유영교회(장병근 목사), 시온

제일교회(원도연 목사), 열린문교회(허민수 목사), 수정교회(이준규 목사), 예수반석교회(김원진 목사), 산돌교회(김대호 목사) 등은 7월 초에 ▲주은혜교회(권광희 목사), 뉴저지온누리교회(최마크 목사),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 목사) 등은 7월 중순에, ▲새방주교회(박인갑 목사)는 9월 초에, ▲솜미션처치(이영만 목사)는 “형편이 완화된 때” 현장 예배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 온라인 예배를 중단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새방주교회 한 군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겠다”는 답을 보내왔다. 유영교회와 섬기는

### 교통사고

NJ 사고 상해도 상담  
대형 Commercial 소송 전문

**정준호 변호사**  
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24시간 상담가능

Attorney Advertising.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a similar outcome.

오늘의 환율과 날씨

☀️	희미	6월 12일(금) 최고 85도 최저 61도	☀️	희미	6월 13일(토) 최고 77도 최저 58도	☀️	희미	6월 14일(일) 최고 74도 최저 59도
----	----	----------------------------	----	----	----------------------------	----	----	----------------------------

*오늘의 환율 / 6월 1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매대 기준율	현 차		송 금		T/C 사실때	외환수표 파실때
	사실때	파실때	보내실때	반으실때		
1,206,20	1,227,30	1,185,10	1,218,00	1,194,40	1,220,67	1,193,72

	확진자	추가확진자	사망
미 국	2,088,010	21,609	115,992
뉴 욕	402,019	686	30,739
뉴저지	168,204	526	12,552

(6월 11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비들을 추가로 구입했다고 알려 왔다.

하나임교회, 한성개혁교회, 시온제일교회 등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인들을 위한 예배가 현장 예배로 전환된 후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חק권 목사는 “친구를 만나면 social distance가 어렵다”고 했다.

목사들은 “모든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 왔지만, 행정 명령을 준수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교회로서의 당연한 의무,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앞을 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